

오순절 후 스물네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4<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1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25 장 “주 믿는 형제들” (새 22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5 번 요한복음(John) 3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Luke) 19:1-10	이윤선 집사
찬 양 Anthem	“예배”	찬양대
설 교 Sermon	“ <b>잃어버린 자를 찾아서</b> ” (Seek And Save What Was Lo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78 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22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주님의 몸 된 지체를 사랑하며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과 거짓과 위선,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글개역 **눅19: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NIV **Luke 19: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7 (주일)	11/8 (월)	11/9 (화)	11/10 (수)	11/11 (목)	11/12 (금)	11/13 (토)
왕하	왕하20	왕하21	왕하22	왕하23	왕하24	왕하25	대상1,2
히	히2	히3	히4	히5	히6	히7	히8
호	호13	호14	을1	을2	을3	암1	암2
시	시137,138	시139	시140,141	시142,143	시144	시1145	시146,147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10 오후7:30)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사5:1-13)
토요 새벽기도회 (11/13 오전6:30)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59:1-17)

지난 주일(10/31) 말씀

전도의 8가지 습관 (6) –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6-20)

오래전, 릭 워렌 목사는 오늘날 21세기에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 첫번째 개혁은 belief(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behavior(실천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바른 믿음은 반드시 이를 뒷받침해주는 올바른 삶(실천)이 뒤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미는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치거나,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일상에서 적용해볼 수 있을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1)첫째,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라는 의미이고, 2)둘째,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며,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의미이며, 3)셋째, 신앙의 습관이 생기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그것이 저절로 삶으로 드러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유지 피터슨 목사의 지적처럼, “기독교 영성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반복적, 점진적, 인격적, 지속적으로 다듬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